

황정수 무주군수 민선 6기 3주년 기념행사

“세계적 관광도시 만들터”

‘반딧불이·태권도’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공공일자리 확대도

황정수 무주군수가 무주를 ‘반딧불이와 태권도’를 기반으로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무주군청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된 민선 6기 출범 3주년 기념행사에서 황 군수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을 무주발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행회를 통해 183개 나라에 태권도원과 성지로서의 무주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만큼 반딧불이와 함께 태권도원을 무주군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질공원 인증과 △생태관광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태권도원을 거점으로 한 태권시티로 성장해 태권도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를 기반으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환경 친화적인 관광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열망하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도 머지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6기 3년 차로 접어들던 지난해와 올 초, 6차 산업화로 하나 된 무주, 무주의 7차 산업화’의 실천을 독려하고 나섰던 황 군수는 이날 다시 한 번 ‘따뜻한 공동체, 정감 넘치는 공동체’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황정수 무주군수가 민선 6기 출범 3주년 기념행사에서 무주를 ‘반딧불이와 태권도’를 기반으로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주군은 그간 6차 산업화로 하나 된 무주, 무주민의 7차 산업화’ 추진을 위해 △마을로 가는 축제를 기반으로 △주말난장과 △농·특산물대축제 개최, △최소 육성사업, 버스단일요금제 추진에 주력해 왔다. “앞으로의 시간은 정(精)을 더한 소통에 주력해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그 변화들로 공동체 무주의 발전과 주민행복을 일궈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황 군수는 공동체 회복과 소득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

기반 정비사업과 △육묘지원을 확대하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버섯 재배로의 전환과 △임산물가공센터 조성, △공통급식 확대, △현제 조성 중인 농산물종합가공기술센터의 조기 마무리, △마을을 중심으로 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충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자리 확대, 농산어촌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정부 기조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일자리와 소득과 관련해 깊어지고 있는 우리 군의 고민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며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공무원 등 200여 명의 공무원들은 영상으로 제작된 지난 3년의 군정기록을 시청했으며 기념사를 공유하며 남은 1년,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더 힘차게 뛰어나가자는 마음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기초조성실 김동필 담당과 기술연구과 이종철 담당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에 앞서 황정수 무주군수는 각 실과소속면장들과 함께 무주를 지남공원의 충혼탑을 참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CCTV 통합관제센터, 군민 보호 시작

군·경찰서 업무협약... 24시간 실시간 관제, 출동·조치 협력

무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3일 문을 열었다.

이날 무주군청 차림터 4층 관제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이대석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백경태 도의원, 내영민 무주경찰서장 등 내빈들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과 무주경찰서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미를 더했다. 두 기관은 무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 24시간 실시간 관제와 상황발생 시 출동, 조치에 협력해 나갈 것 등을 약속했다.

황정수 군수는 “어린이부터 여성,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안전해서 행복한 무주가 곧 깨끗한 고장 부자되는 군민 실현의 첫 걸음”이라며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했던 주민들은 “무주군 곳곳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에 정말 깜짝 놀랐다”며 “누구든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제센터가 지역과 주민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의 눈이 돼 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총 사업비 11억 8,000여만 원이 투입된 무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357㎡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무실과 회의실, 관제

실(통합관제시스템), 장비실, 휴게실 등을 모두 갖췄다.

이곳에는 차량관제와 어린이 안전, 도시방범, 마을방범, 공원, 재난재해, 문화재 관리 등을 위한 41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12명의 관제 인력이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며 무주군청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과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경찰들도 함께 근무를 한다.

무주군 자체행정과 이송하 정보통신 담당은 “저화질 마을 방범용 CCTV 180여 대를 교체했고 내년에 추가로 98대를 교체할 계획이다”며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무주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안전 사회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원술 정읍소방서장 취임

제19대 정읍소방서장으로 김원술(57·사진) 전 119종합상황실장이 새로 부임하여 정읍소방서 1층 회의실에서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취임식을 가졌다.

김원술 서장은 1984년 10월 소방에 입문하여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소방방재청 재난전략상황실, 군산소방서장, 무진장소방서장, 부안소방서장,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며 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탁월한 기획력과 남다른 소신으로 공직생활에 임해 왔으며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휘통솔 능력을 갖춰 평소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정평이 나왔다.

취임식에서 김 서장은 “국민들의 신뢰와 함께 우리 조직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다양한 실무 경험과 창의적 예방 활동으로 정읍 관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땀 흘린 김원술 서장의 역할이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전 예방·선제 진압 최선”

김일선 무진장소방서장 취임

무진장소방서는 3일자로 제9대 무진장소방서장에 김일선(58·사진) 서장이 취임하여 무진장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및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기본에 충실한 자율적 업무수행”,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향상”, “협력과 화합이 우선하는 조직문화”라는 세 가지 북무방침을 토대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주·진안·장수 지역의 소방활동을 이끌게 된 김일선 서장은 이날 취임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활용한 사전적 화재예방과 선제적 진압능력을 높여 화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귀중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여 도민

생활을 안정 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취임 소감을 피력했다. 새로 부임한 김일선 서장은 전북 진안이 고향이며, 1983년 전북도 소방공제로 소방에 입문하여 전북 소방본부를 거쳐 남원소방서 방호과장, 전주완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정읍소방서장 등 전라북도 주요부서를 두루 역임한 소방분야 행정 전문가이면서 직원친화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주민세 재산분 안내

장수군이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장수군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농업미생물 활용교육 인기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 사용 농가 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미생물 활용 교육이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교육은 서진바 이오 송정우 연구원을 초청 유망미생물 농축산 활용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이열 주방세계, 이열 모기퇴치제 등 생활 속 유용 미생물 활용법도 교육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진안=우태민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진안고원 농산물 안전과 소비자 신뢰, 농가소득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군은 로컬푸드 매장과 진안시장 고향할머니 장터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20~30여 품목을 수시 수거하여 잔류농약 245가지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저 농약 또는 유기농 생산도 장려하고 있으며, 토양검사를 통해 유기농업과 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등 진안고원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111점을 수거하여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농작물 잔류농약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진안군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안시장을 자주 찾겠다는 전주의 한 주부는 “고향할머니장터에 오면 친정엄마의 정을 느낄 수 있고, 농산물을 믿을 수 있어서 진안 장남이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서영화 소장은 “진안군의 로컬푸드가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잔류농약 분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군 공동체 역량강화교육 진행

무주군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이 3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이장과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지역 리더들의 역할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과 마을리더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장, 부녀회장들은 화합을 주도하고 내 마을이 잘살 수 있도록 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공감할 자리였다”며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마음과 귀를 열고, 더 부지런히 뛰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AN GOWON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